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게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민성동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5월 19일(월) 제 3096호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총리 국회서 선출”

전남북·광주 잇따라 방문
“전북 소외 지방정책 부족 탓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개헌 내년 地選이나
2028총선 때 국민투표 실시”

D-15 6.3 대선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3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5·18 민주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여는 공연(주모 오월시 낭독), 경과보고, 기념 공연(학생 희생자 소개·추모곡), 기념사, 기념 공연(미래세대가 전하는 희망 메시지·대합창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이곳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를 위해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피 흘린 오월 영령들의 외침과 아픔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공동체 정신이 하나 돼 오월의 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는 5.18 기념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장 임명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도 헌법에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6월 3일 이재명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을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뽑아 달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대학교 교정문에

서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도 유세를 펼치며 “전북의 소외감은 지방 정책에 부족함”이라며 “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라 발전의 필수 전략”이라며 지방균형 발전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전주에서 열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부산 엑스포처럼 준비만 요란하다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는 이미 올림픽 개최 도시로 지정된 상태고,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치국으로 선정되는 일”이라며 “이 기회까지 놓치면 또다시 전북만 소외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 발전이 다해 “이제는 수도권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은 식품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의 잠재력이 큰 지역인데도 늘 광주·전남에 밀려 상대적 소외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전북 방문은 본선이 시작된 뒤 2번째 방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익산과 군산, 전주, 정읍을 차례로 방문했다.

/최성민 기자

김문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사업 적극 지원”

17일 공식일정 전북 첫 방문
전북개인택시조합과 간담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7일 공식 선거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동성당 앞 유세 현장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및 새만금 개발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36년 하계 전주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며 전주시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이 새만금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고 땅값 싸게 해드리고, 좋은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삼박자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인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전주 한옥마을 거리 유세 후 전북개인택시조합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김 후보는 조합 관계자로부터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보조금, 대폐차 비용 국비지원 문제는 가능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택시 업계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 가까이 31개 시·군에서 본인의 ‘1일 택시기사’ 체험실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김제시 새만금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을 끝으로 전북지역 유세를 마치고 광주로 떠났다.

/김영태 기자



군산출신 서정민 선수 인카금융배 볼링 국제 오픈 우승

일명 양손 투구법을 쓰는 전북자치도 군산출신 서정민(24.김해시체육회 소속) 선수가 최근 폐막한 2025 인카금융 슈퍼볼링 국제오픈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프로 2년차인 서 선수는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인카금융배 첫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1억원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열렸지만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 등 경쟁한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결승전에서 최정우 선수를 누르고 우승했다.

서 선수는 군산동중등학교와 군산제일중학교를 졸업한 후 군산마이스터고 재학중 볼링팀이 있는 고창북고로 전학해 본격적인 볼링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전북자치도내에 실업팀이 없어 결국 지난해 김해시체육회(구 부경양돈농협팀) 선수로 입사하고 함께 대한볼링협회 등록 선수로서 본격적인 선수활동을 시작했다.

서 선수는 내년도 2, 3월에 있게 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표로 뽑히는 것이 목표다.

서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볼링장을 드나들며 볼링의 기술을 습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북지역에는 실업팀이 한팀도 없어 고창에서 선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 군산에는 부친 서진우씨 등이 살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기록의 향

The Archivist's Room

1995년 춘향제
2025. 04. 30 ~ 05. 06

1963 춘향제

2000년대 제7회 춘향제
춘향제가 개편

1977 제47회 춘향제

춘향의 향
-내용
-구조
-명칭

춘향의 길놀이
제일문예사-저지
1960년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5579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함파로길 65-14
063-620-5660

관람시간 10:00~18:00
진시해설 매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입장료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그 다음 평일이 휴관)

주최 남원시 주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남원시 문화유산팀

2025. 04. 24. 목 ~ 07.13. 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갤러리2

한국갤럽,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이재명 사실상 독주체제 TK 30% 호남 76% 지지 국힘 지지율 폭락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선 51%로 집계되는 등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독주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3~15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이외 인물 1%로 나타났고, 유권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지지율은 4월 말 조사때보다 13%포인트 폭등하면서 50% 벽을 돌파했다. 각 후보별 연령대별 지지세는 이재명은 40~50대에서 70% 내외, 김문수는 60대 이상에서 50% 내외다. 다만 60대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가 비등하고, 20~30대에서는 이재명이 김문수보다 우위다. 이준석 지지도는 청년층(20대 24%, 30대 14% 40대 이상 3~5%)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10%)과 여성(5%) 차이가 두드러진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4%가 이재명, 보수층의 58%는 김문수를 선택했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20%, 이준석 12%다. 지역별로 호남에서 이재명은 76%의

지지율을 받았다. 이재명은 대구경북에서 34%를 기록, 마의 30%벽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경북에서만 이재명을 앞선 김문수의 지지율은 48%로, 50%를 밑돌았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09명, 자유응답) '직무/행정 능력', '잘할 것으로 기대'(이상 13%),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0%), '계엄 심판·내란 종식', '경제 기대·경제 정책'(이상 8%), '정권 교체', '국민의힘이 싫어서', '신뢰·진실함', '그동안 잘함·경험', '실용적·합리적·똑똑함'(이상 4%) 등 경험과 역량에 기반한 국정 기대감, 내란 종식 관련 언급이 많았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 진보당, 이의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5%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4월말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6%포인트 폭등하면서 윤석열 정권 출범후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4%포인트 빠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4월 2주)와 동률로 추락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 기자



“국방개혁 전환기, 국방에너지 자립 필요”

“민군관계 정립·문민화 특정군 중심 구조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희승, 안규백, 위성락, 이성윤, 정동영 의원(가나다순)과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지난 15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 아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내외 안보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합세한 계엄시도의 위협을 지적하며 사회 안전, 안보기구 포함하는 안보부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 민군관계를 정립하고 국방분야의 문민화와 특정군 중심 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미래차 대전환 자동차산업 생태계 재편성

脫내연기관화 미래차 전환 상용차 자율주행 시대 개막

전북특별자치도는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자율주행 기술 실증 통한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재편성하고 있다.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재편성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정책적 흐름에 맞춰 '탈내연기관' 구조 전환을 핵심으로 삼았다. 전기 상용차 시장은 지난해 709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까지 2,556억 달러

로 성장할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도 2023년 49억 8천만 달러에서 2031년 624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년~2033년)'에 따라 2030년까지 도내 친환경차 8,800대를 보급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도 연평균 8.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됐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2027년까지 레벨4(특정구간 무인주행) 수준의 자율

주행 상용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개소한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새만금산단에 들어선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는 도내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며,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상용화와 공동연구 허브 역할로, 현재 센터에는 10개 기업이 입주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연소·폭발 등 안전성 분야 한국인정기구

(KOLAS) 인증을 준비 중으로, 향후 부품 신뢰성 검증기관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의 완주·군산을 중심으로 전기트럭과 전기버스의 양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이들 민간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2023년 21건, 2024년 13건)중이며 특히 '22년 개발된 6개 부품은 타타대우의 '23년식 디센' 차량에 적용하여 1,700대 판매하는 등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도는 실증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전북청소년박람회 수소전기버스 인기

수소에너지 게임·이벤트 청소년들 다양한 경험 선물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규)이 준비한 수소전기버스 체험존과 게임, 이벤트 코너가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 군산시 주최로 지난 15~16일 이틀 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2회 청소년박람회에서 현대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 중인 자사의 수소전기버스를 행사장 한 편에 배치해 청소년들이 미래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수소버스 운행 시 배기가스 대신 배출되는 깨끗한 물을 활용한 물총 사격게임 코너를 운영해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전기에너지와 물이 생성되

는 수소에너지 생성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공상태 통돌이 속에서 회전 중인 산소와 수소 불꽃을 각각 2개, 1개씩 잡아올리는 스폰지게임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전개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운영하는 수소전기버스 체험 코너와 이벤트 게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주행 시 배기가스 대신 물만 배출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버스와 달리 진동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미래형 차 기술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한편, 물총 사격게임과 스폰지게임 코너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열띤 경쟁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들을 만끽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번 청소년박람회와 관련해 “전북의 미래이자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에너지인 수소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고, 그 생성·작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준비한 수소전기버스 체험존과 게임, 이벤트 코너가 참가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사진=전북자치도> 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전주시 골목길 유세

“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찍어달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시에서 '구석구석 골목길 유세활동'을 펼쳤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수석부본부장과 총무본부장, 테러 대응 TF 간사를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구 유세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선대위 회의가 없는 이날, 전북병무청오거리 일원에서 지역 도의원 시의원,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새벽과 아침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열었다. 이어 김윤덕 사무총장은 상가 등을 도보로 돌며 '전주시 구석구석 골목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표시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일반도로와 구분되는 붉은 색 노면

자동차 제한 속도 30Km/h이하

전북현대모터스FC, 전주시에 녹색 유니폼 입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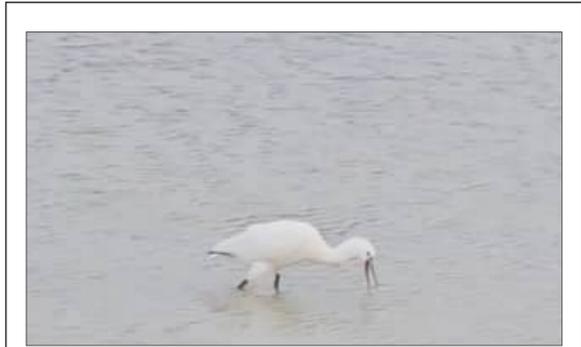
전주시에 6천만원 기부 공공정원 조성·시민과 함께 가꾸는 정원문화 기대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녹색공간의 품격의 도시 전주만들기에 동참키로 했다. 전북현대모터스FC는 지난 17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K-리그 홈경기 시작에 앞서 전주시에 정원 조성 사업을 위한 기부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전북현대모터스FC가 그동안 열렬한 성원을 보내준 전주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주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대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기부금 전달 행사에는 우범

기 전주시장과 이도현 전북현대모터스FC 단장, 정명운 (사)더 숲 대표뿐 아니라 많은 시민과 축구팬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주시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 전주한옥마을 내 최명희문학관과 공예품전시관 내·외부, 전주 동헌 등 총 4곳에 공공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정원들은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비영리 환경재단인 (사)더 숲을 통해 집행되며, 정원 조성과 더불어 향후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에 전액 활용된다. 또한 정원 조성에는 (사)더 숲을 비롯해 전주시가 양성한 초록정원사와 정원작가, 마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초록정원사는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

해 배출한 시민 전문가들로, 다양한 도시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활동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후원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정원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정원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원의 의미와 식물의 다양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원 조성을 통해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커피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정원작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정원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들 정원은 단순한 경관 요소를 넘어 일상 속 치유의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며, 기존 불법 경작지나 방치된 공간을 생태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원 조성 이후의 운영과 지속적 관리를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사)더 숲, 전주공예품전시관, 한옥마을사업소와 함께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전북현대모터스FC의 기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녹색 공간 조성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가치를 실천한 소중한 사례일 것"이라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공간이 되도록 전주시가 중심이 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현대모터스FC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연고로 한 K리그 대표 명문 구단으로, K리그 최다 우승(9회), 5년 연속 리그 우승, FA컵 5회 우승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25 시즌부터는 그리스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거스 포엣(Gus Poyet)이 새로운 사령탑을 맡아 팀을 이끌고 있다. /정재근 기자



전주 덕진공원, 도심 속 생태보고 '주목'

수달 등 야생동물 서식 서식지 기능 회복 노력
전북자치도 전주 도심 속 생태공간의 덕진공원에 멸종위기 동물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이곳이 야생동물의 새로운 서식처이자 생태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덕진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관찰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수달과 남생이, 노랑부리저어새 등은 맑은 수질과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없는 불가능한 동물들로, 덕진공원의 생태적 건강이 크게 회복됐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4마리가 덕진공원 수변구역에서 사냥과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3월에는 노랑부리저어새와 도요새 무리가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덕진공원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처럼 덕진공원이 다양한 야생동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하고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덕진공원의 생태복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호수 수질개선 △남생이 보호 및 서식지 복원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여기에 올해 △열린광장 조성 △창포원 조성 △산책로 정비 등 덕진공원 관련 기반시설을 완료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태계와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나이트프렌즈' 뜬다

40명 요원 주요 관광지 프로그램 행사장서 활동 안전 신고 전계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 주요 야간관광지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게 될 제3기 '전주 나이트프렌즈' 40명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전주 나이트프렌즈' 3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 나이트프렌즈'는 전주시가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1기 30명과 지난해 2기 32명에 이어 올해 3기 40명이 활동하게 됐다. 전주 나이트프렌즈 3기는 야간시간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활동성과 적극성을 가진 관광 관련 전공 대학생과 유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대학교와 연계해 지난 3월 모집 절차를 시작으로 이문교육 대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특별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3기를 통해 더 풍성하고 생동감 있는 전주 야간관광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주 나이트프렌즈" 야간관광 안전지킴이원들의 적극적인 안전 및 각종 사고 발생 위험 요인 발견 시 안전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야간관광 프로그램 안내와 외국어 안내, 행사지원 등을 맡게 된다. /정재근 기자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나이트프렌즈는 지역의 관광 전공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특별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3기를 통해 더 풍성하고 생동감 있는 전주 야간관광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주 나이트프렌즈" 야간관광 안전지킴이원들의 적극적인 안전 및 각종 사고 발생 위험 요인 발견 시 안전신고 활동을 전개하고, 야간관광 프로그램 안내와 외국어 안내, 행사지원 등을 맡게 된다. /정재근 기자

전주 A관리소 직원 허위고소 입주민,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A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공동상해로 고발한 입주민(이하 B씨)에 대해 무고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물손괴한 부인에게는 100만원 벌금 선고했다. 본 사건은 B씨가 지난 22년 10월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서류 미흡으로 동대표 선출이 좌절되자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 2022년 12월 2일 B씨가 게시한 현수막이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화재 예방 현수막을 가려 관리사무소장이 화재 예방

현수막을 철거하려 하던 중 B씨가 이를 제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어 B씨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공동상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B씨 주장이 무고이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인정되며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던 다수의 직원들을 고소하고 피해자들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공동 상해로 고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또 B씨가 CCTV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넘어 들어온 것에 대해 "피고인이 화면 아래 캐비닛을 열고 마우스를 빼서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업무 방해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고통에 빠뜨린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위험 행사가 없었음에도 혼자 쓰러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공동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잘 알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

을 모두 부인하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법원에까지 나와 증언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2차 피해 및 공권력의 낭비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역 A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개입 등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지역 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태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설천봉~향적봉 상행구간(0.6km),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염령 상행구간(4.4km) 총 2개 구간에 대해서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 기간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서 예약 가능하며, 인터넷 예약 미달 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탐방로 예약제는 불철 개화·번식기에 탐방객 과밀 이용에 따른 훼손을 저감해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주요 특산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김진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우수한 자연자원이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고 있다. 이 구간들은 탐방객 과밀에 따른 자연 자원의 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특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영 사유를 밝혔다. 김진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우수한 자연자원이 그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경찰청, 소형화물차 교통안전 활동 강화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소형(1톤·밴형)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1개월간 추진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24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1명 중 소형화물차는 30명으로 58.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월별 소형화물차 사고에서는 (월별) (1·5·6월) 각5명, (8·9·12월) 각3명, (3·4월) 각2명, (7·10월) 각1명 순, (지역별) 시(읍·면)권 23명(77%), 도심(구·동)권 7명(23%), (운전자 연령별) 고령자 18명(60%), 비고령자 12명(40%)으로 나타났으며, 5·6월 영농철 소형화물차 사망자는 10명으로 확인됐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고령화되는 농촌 지역 중요 교통수단인 소형화물차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동시에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이 서투른 어르신일수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휴비스, 대규모 소방합동훈련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지난 16일 지역 대표 화학공장인 휴비스1공장에서 2025년 대규모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며 민관 협력 성공적 사례 결과로 이끌었다. 전북덕진소방서-휴비스가 연산누출·화재 가정된 고강도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망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이번 훈련은 '연산 누출 사고,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해 소방차 5대, 소방대원 17명 등과 함께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휴비스 공장에서도 공장장을 포함한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업 복합재난 대응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집중'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총 8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총 8억 원 규모의 3대 주거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먼저 전주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약 4억3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대해 창호, 도배, 장판 등 주택 내부 주요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약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위소득 60%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다. /정재근 기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 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 원산지 표시위반 ‘뿌리 뽑는다’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내달 5일까지 중대위법행위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안심 먹거리 배달 위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 공정한 유통 조성'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현장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교육을 병행해 유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개: 농산물 9, 수산물 20)

농산물 (9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우양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20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개,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쟁이(망개), 전복, 방어, 부세

* 수산물 가공품, 조리 판매 재공하기 위하여 수육판 등에 전열하고 싶어있는 수산물을 포함

농·축산물을 원산지 표시제도. <사진=전북자치도>

(쌀·콩·배추김치)와 축산물 6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택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균일모 키우기. <사진=전북농기원>

벼 모내기 준비에 분주한 농촌의 하루

농촌은 지금

벼는 생육기간이 품종에 따라 120~180일로 차이가 있다. 우리 지역은 생육기간이 180일 정도인 중만생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5월초부터 파종을 시작해 5월 25일 전후에 모내기를 한다.

지금은 모내기를 준비하는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벼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건전한 묘를 생산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노지에서 비닐터널이나 부직포를 덮어 35일간 모를 키워 이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10일모 생산기술이 보급되어 10일간 육묘기간을 거쳐 바로 이앙할 수 있다.

한다. 싹이 나온 후에는 하우스내 환기와 물주기를 정밀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물을 자주 많이 주면 토양 과습에 의한 곰팡이병이나 도장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호흡 불량에 의한 뿌리썩음병이 발생해 불균일묘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못자리 바닥이 불균일해 바닥이 과습상태로 육묘기간이 길어지면 수세미형 뿌리 매트를 형성해 이앙이 불가능하거나 이앙 할 때 흩어짐이 현상이 발생해 활착이 늦어질 수 있다.

하우스 육묘는 매일 물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잠시 소홀할 경우 묘가 마르거나 과습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튼튼하고 균일한 묘를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 시기에 철저한 관리가 심해 싹터우기와 파종후 발아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발아 불량률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제공=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전주시, 미래농업 이끌 청년 리더 양성

전주농업기술센터 실습 교육 한국농수산대 연계 역량 강화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올해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 리더 양성에 나선다.

16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총 13회에 걸쳐 전주시청 청년 농업인의 농업적 영농 정착과 농업기술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2025년 미래농업 청년리더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업 정책과 동향 △작목선택 및 재배기술 △농산물 유통 △농식품 가공 및 실습 △스마트 농

업 활용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농업 기본소양 교육과 실습 및 현장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전주시와 한국농수산대학이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 설계한 것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와 농업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청년농업인의 리더십, 경영, 농업기술 향상을 돕게 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청년농업인의 농업기술 향상과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품목별 전문재배기술, 농가현장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농업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이론교육과 현장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전주상의 '트럼프 시대 기업 대응전략' 교육

美 관세 정책 변화 이해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경태)는 회원 기업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시대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AI 산업 및 주식·채권·상품시장에 대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시대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 교육은 지난 15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영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와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인사, 노무,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우즈베키스탄서 'K-낙농' 실증사업

젖소 전주기 실증데이터 구축

한국산 낙농 기술과 농기자재 묶음(패키지)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증 단지가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조성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케이(K)-농업기술 활용 해외 진출 모형'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광용 국장을 비롯,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우즈베키스탄 축산연구소 누르마토프 아잠 존 아크바로비치 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기

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실증사업은 한국형 우량 젖소 생애 전 주기 정보(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첫 사업 대상으로 낙농산업 비중은 크지만, 기술이 낙후된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구축한 사업 기반(협력 농장, 정부 연결망 등)을 국내 농산업체가 수출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국형 농기자재를 생애 단계별로 실증하고 관련 정보를 축적해 인근 국가로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미래지향형 산업 기업유치 '속도전'

이차전자차 부품·펄프 분야 28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지역별 육성산업 맞춤형 유치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 유망기업 3곳과 총 2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기업유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에스아이머트리얼즈(5.12), ㈜건국테크(5.14), ㈜위드이엘(5.16)과 각각 투자협약을 맺었다.

도는 이를 위해 익산시·완주군·정읍

시 등 해당 시군과 함께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정착과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차전자용 고순도 실리콘 분말 △버스·대형트럭 조립 부품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 등 첨단 산업과 신시장 분야에서 고르게 이뤄져, 전북 산업 지형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아이머트리얼즈는 익산시 성당면에 104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부산물에서 고순도의 메탈실리콘 및 실리콘 분말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한다.

해당 기술은 실리콘 부산물을 순환 재

활용하는 세계 최초 모델로, ESG 경영과 순환경제 실현의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완주군 테크노2산단에 107억 원을 투자한 '㈜건국테크'는 버스·트럭의 조립 부품을 생산한다.

현대자동차 완성차 부품 생산과 전기차 배터리 모듈 장착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기존 2개 공장에 이어 제3공장을 신규 설립했다.

정읍첨단과학산단에 65억 원을 투자한 '㈜위드이엘'은 반려동물 기능성 유기농 사료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자사

브랜드와 정읍 바이오 클러스터 간 기술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나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은 협약 기업에 대해 입지·행정·재정 지원, 지역 인력과 자재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도내 기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별 육성산업에 맞춰 전북 곳곳에 꾸준히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네덜란드, 글로벌 푸드허브 협력 전략 공유

새만금 허브 기후대응 조명 글로벌 식품산업 거점 모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과 지난 16일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와 미래 식품산업'을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에서 공동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과 한-네 양국 새만금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자리에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 윌광대·군장대 총장,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에 관심이 있는 일반 관계자들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션1에서는 '글로벌 식품의 미



새만금개발청은 16일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국제협력세미나-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와 미래 식품산업'을 공동개최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래와 새만금'에서는 국제 식품산업의 동향과 네덜란드 측에서 연구한 새만금과 한국 농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FAO한국협력연락사무소 탕 성야오 소장이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및 농식품 시스템 전환'이란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식량위기와 설립 80주년을 맞은 FAO의 노력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

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방향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세션 2는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추진전략과 향후 계획, 글로벌 식품기업인 로열케인과 풀무원 사업, 세계적인 식품네트워크인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벨리의 운영 방안 등이 소개됐

다.

/김영태 기자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스마트농업 경쟁력 확보 나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선정 덕진구에 박과 데모온실 설치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김상남)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한 중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이와 멜론을 주요 품목

으로 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과(오이·멜론) 지능형 K-Farm 데모온실 구축 및 검증용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총 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K-Farm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덕진구 고랑동에 약 4000㎡(1200평) 규모의 데모온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개발 항목은 △병해충 및 재

해 대응 시스템 △수확 예측 및 자동화 시스템 △자동순환 양액 시스템 △수확용 로봇 개발 △판매 및 유통 최적화 기술 등이다.

연구원은 이 기술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 최적화된 K-Farm 표준 모델로 구현되면 지역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전남 지역의 스마트팜 전문 기업인 ㈜로그인 서광이 주관하며, ㈜카라멜라(인공지능 기술기업)와 미래센서(농업 전문 기술기업), 국립목포대학교와 함께 산·학·연 협력으로 추진된다.

/정재근 기자

MZ세대 '텍스트힙' 열풍에 전주 도서관도 '고공비행'

전주 도서관 여행 콘텐츠
전년 비소셜 언급량 19% 증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힙(text-hip)' 열풍에 힘입어 전주의 이색적인 도서관들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힙'이란 책을 의미하는 '텍스트'와 멋지다는 뜻의 '힙'의 합성어로 '독서하는 행위가 멋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함께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발간보고서에서 전주 도서관 여행이 '빅데이터로 알아본 뜨는 도시&기대되는 도시'에 선정되는 등 전주 도서관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간보고서는 2024년 6개 소셜 채널의 데이터 증가율을 분석한 것으로, 전주 도서관 여행은 2023년 대비 소셜 언급량이 19% 증가하는 등 높은 관심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힙(text-hip)' 열풍에 힘입어 전주의 이색적인 도서관들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주 도서관 여행을 올해 9개 코스로 여행 코스를 확장했으며, 재개관한 완산도서관뿐만 아니라 완주의 복합문화공간까지 도서관 여행지로 확대하면서 다채로운 여행 코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은 현

는 도서관의 다양한 매력을 젊은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개별 도서관 여행자뿐 아니라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많은 기관에서도 꾸준히 전주 도서관 여행을 찾고 있다.

현재 기관 대상 전주 도서관 여행은 상반기 신청 마감에 임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북교육연구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기관 대상 전주 도서관 여행에는 현재까지 14개 기관에서 240여 명이 찾아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러브코리아 필리핀 보홀에서도 전주의 도서관 문화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전주의 도서관을 둘러보고 SNS에 방문 후기를 업로드했다"면서 "도서관 여행에서 갖지 못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 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대, 창업기업 맞춤형 교육교류의 장 마련

창업기업 대상 역량강화 캠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창업지원단이 '2025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캠프 'Nice to meet-up'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북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올해 첫 프로그램이다. 예비창업자부터 초기·도약 단계의 창업기업까지 총 7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기존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예비-초기-도약 단계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의 안정적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올해에는 권역 내 창업기업 50개사,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 10개사, 생애 최초 예비창업자 10개사 등 총 70개 기업이 선발됐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수립, 경영 시뮬레이션 특강, 단계별 투자 가이드, 사업비 사용 지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사 성장의 길 연다

전북형수업혁신성장인증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중등교사 수업혁신 성장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사 수업혁신 성장 인증제는 교사들이 수업·평가 혁신을 주도하고 현장의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3단계 인증 체계를 도입해 수업전문성 육성을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교육청의 고유 정책이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단순한 연수 이수가 아닌 실제 수업 개선과 학생 변화 중심의 실천 역량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사 수업혁신 성장 인증제는 '수업혁신 해법교사, 수업혁신 성장교사, 수업혁신 이룸교사' 3단계로 구성되며 연구 활동, 수업나눔·수업성찰, 수업 참관·컨설팅, 수업혁신 지원단 활동 등 1년 단위로 활동 실적을 심사한 뒤 학기 말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우수 수업사례 공모나 일회성 인증이 아니라 체계적·단계별 성장 지원, 실천 기반 평가 및 인센티브를 병행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인증 받은 교사는 교내의 수업 나눔·수업자료 개발·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활동비 지원을 비롯해 연수 참여, 수업혁신 지원단 및 정책 자문단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첫 단계인 '수업혁신 해법교사'와 2년차 '수업혁신 성장교사'를 선발해

각 인증 단계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수업나눔 박람회 참여를 의무화해 성과 공유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교실 수업 혁신은 정책이 아닌 교사가 주도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단계형 인증제를 바탕으로 전북형 교실혁신 모델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립합창단, 한국전쟁 75주년 기념 오페라 공연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김철)이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영화 오페라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155회 정기연주회'인 영화오페라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 공연을 펼친다.

이번 창작오페라 공연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약 1만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부산과 거제를 거쳐 안전하게 탈출시킨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공연 입장권은 전석 1만 원으로, 나루컬처 누리집(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학생이 이끄는 변화" 전북·전남 학생의회 손맞잡다

청소년박람회 화합의 장

전북학생의회와 전남학생의회가 상호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2회 청소년박람회에 열린 15일부터 16일까지 군산 일원에서 '전북·전남 학생의회 의정활동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이 이끄는 변화, 전북과 전남이 이어갑니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전북학생의원 17명, 전남학생의원 16명, 지도교사 등 총 45명이 참여

했다.

이들은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부스체험 △진로콘서트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 △친교와 의정활동 나눔 한마당 △군산 역사 및 생태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친목을 다졌다.

전북학생의회 김수호(부안 서림고) 의장은 "학생이 주체가 되는 변화가 지역과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명재어린이집 7세 원아들, 소방동요대회 출격 준비 완료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오는 6월 13일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명재어린이집 소속 7세 원아 21명이 유치부 대표로 출전한 다.

이번 대회는 도내 어린이들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다.

유치부 6개팀과 초등부 9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명재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소방동요를 부르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위험한 행동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있어요"며 대회를 앞두고 꾸준한 연습과 함께 화재예방 및 안전 수칙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이고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번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기르고, 가정에서도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우수한 팀은 전국대회 출전의 기회를 얻게 된다.

/김영태 기자

화재발생 원인 1위 "부주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담배꽂초는 불이 꺼졌는지 확인!!



화기는 항상 꺼져있는지 확인!!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 금지!!



음식을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군산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군산시는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9월 대야면 수림로 일원에 각 1,593㎡ 규모의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 5동을 조성했다.

스마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내재해형 3연동 비닐하우스로 내부 환경을 작물의 생육환경에 맞게 유지 할 수 있는 ICT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전기보일러, 양액재배 설비, CO2 공급기 등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경영실습 스마트팜 임대농장은 청년 농업인 5팀이 입주해 가지, 오이, 딸기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은 2025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2동 교체류 재배동과 4~5동 딸기 재배동 총 3동에 대해 모집하는 것으로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으로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며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고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계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임차인은 2025년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3년간 임대농장에서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되며,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저수조 설치 신고 당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익산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현재 저수조를 운영 중인 기존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상수도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신·출산·육아 한눈에 익산시, 가이드북 발간

익산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정부와 익산시의 지원 정책을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용서로 △임신·출산 지원 △맞춤형 육아 서비스 △맞벌이 가구 지원 △가구 유형별 정책 등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구성했다.

특히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 등 국가 주요 지원정책은 물론, 익산시의 특화 정책인 △출산장려금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야간·공휴일 시간제 보육 △방문육아코디네이터 등도 담아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가이드북은 지난달 기준 부모급여를 수급 중인 가정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행정복지센터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영등동),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모현동)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산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공약 이행 5년 연속 우수 평가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도 7년간SA 등급5년A 등급1번

익산시가 (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5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한 성적표를 받으며 신뢰 행정을 입증했다.

특히 시는 민선7기 첫 공약평가에서 SA(최고)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2021년부터 2024까지 4년 연속 SA(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도 A(우수)등급을 유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이행 역량을 보여줬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자료 등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4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일일치도분야이며, 익산시는 평가항목 합산 총점이 83점을 넘어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시장 주재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마다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

아울러 매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

작위로 선정된 시민배심위원단을 구성해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 시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부터 매년 점검 과정을 시 대표 누리집에 상세히 게시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올해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며 "남은 임기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펫푸드기업 위드이엘, 투자협약 총 65억

첨단과학산단에 공장 건립

정읍시가 펫푸드 기업인 (위드이엘)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위드이엘) 이현옥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위드이엘)은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8313.5㎡(약 2515평) 부지에 총 65억원을 투자하고, 1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최신 생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올해 안에 생산 시설 건립에 착공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위드이엘)은 펫푸드 브랜드 '펠리코'로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이번 정읍공장 신설 투자를 통해 정읍첨단연구단지 내 여러 연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신제품을 개



정읍시는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위드이엘) 이현옥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정읍시>

발하고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부자재는 지역 농가 등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펫푸드 산업에서 떠오르는 기업인 (위드이엘)의 정읍 투자 결정을 진

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위드이엘)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치유형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발돋움

'2025 메가주 일산' 박람회 참가

익산시가 전국 반려인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5 메가주 일산 케이펫페어'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박람회에서는 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록 더 빛나는 치유여행'을 주제로, '다다익명 익산'을 통해 추진하는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홍보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얻었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 프로



그램인 '멍통 도그나루 캠프' 등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익산형 치유 관광 콘텐츠가 큰 주목을 받았다. 멍통 도그나루 캠프는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무로 골짜기 캠프장과 익산 일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향기 테라피, 다도 체험 등 반려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반려동물 체험형 치유 관광 기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안전도시 정읍'...이 시장, 안전점검 현장 지휘

폐기물처리등 주요 시설 방문

정읍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폐기물처리시설과 내장산케이블카 등 주요 시설 현황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의 일정으로 109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장의 현장 방문은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이 시장은 재활용품의 선별·보관 상태, 선별시설 작업 환경 실태 파악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내장산케이블카 사업장에서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 점검 상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주요 설비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 경미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철저한 점검만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지속적인 위험요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안전한 정읍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퍼포먼스 부문 대상

2025 K-Festival 참여

군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Festival 2025 제11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군산 대표축제로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부스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이번 k-페스티벌에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 부문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25 K-Festival은 각 지역의 역사적, 민속적, 문화적, 전통을 소재로 한 축제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통해 전국 축제 정보를 쉽게 접할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인전잡, 메가쇼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한국축제포럼 등이 후원하는 축제 전문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여러 유관 기관 축제 관계자가 참여해 수도권 관광객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축제 및 관광지를 홍보하였다.

군산시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는 물론, 같은 기간 개최예정인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적극 알리고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k-관광섬 등 군산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2025년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섬 지역 생활 쓰레기 일제 수거 추진

5월 중 개야도 등 9개 섬

군산시가 이달 중으로 개야도, 어정도 등의 섬 발생 생활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 쓰레기는 바다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는 달리 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쓰레기로 육지의 일반쓰레기와 같다.

다만, 섬 지역은 청소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주기적인 수거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일반 생활 쓰레기 외에도 어구,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관할 지역 중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9개 섬을 생활 쓰레기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예부선을 이용해 수거해 왔다.

실제로 시는 작년 가을 섬 지역 생활 쓰레기를 320톤 정도 수거하여 처리했으며, 이는 환경부의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중 농어촌지역 생활폐기물의 6개월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지난해 수혜로 인한 폐기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시는 그만큼 수거·처리량도 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의만들자"...市, 적극 지원

정읍시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15일, 첨단과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입주기업협의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의의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의 창립이 필요하다는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20여 명의 기업 대표가 참석해 창립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협의회 구성

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열린 토론을 통해 협의의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협의의 정관 마련, 초대 회장단 선출, 창립총회 개최 등 공식적인 창립 준비를 본격화해 올해 안에 협의의를 성공적으로 창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오는 20일에는 제3산업단지에서도 간담회를 개최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의 발족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입주기업협의회 창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제9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식

시민참여예산 운영 본격화

군산시가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9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참여예산 시민위원은 총 51명으로 공개모집·읍면동·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되었다. 임기는 27년 4월까지 2년간이다.

16일 열린 위촉식에는 위촉장 수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 선출이 이어졌다. 또한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군산시 재정 현황 및 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도 진행됐다.

본격적으로 출발한 군산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총 4개 분과(행정안전, 경제문화, 복지환경, 해양농업)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나아가 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도 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주한영대사관, 기후·생태 논의

개러스 위어 부대사 등 기후에너지팀 간담회 신재생에너지 비전 청취

고창군은 지난 16일 개러스 위어(Gareth Weir) 주한 영국 부대사와 영국 대사관 기후에너지팀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 및 생태, 에너지 분야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러스 위어 부대사는 영국 외·개발부(FCDO)의 고위직을 역임한 기후외교 전문가로, 네발과 모잠비크등지에서 국제 개발 및 기후 정책 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주한영구대사관 부대사로 재직중이다.

이번 방문은 주한영국대사관이 15~16일 해상풍력 현장 탐방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영국 측에서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 아미르 파텔 경제외교차관, 조나단 우드랜드 기후에너지팀장이 참석했으며, 고창군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은 지난 16일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와 영국 대사관 기후에너지팀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 및 생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창군>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4명이 함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영국대사관 측은 고창군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 보전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전을 칭찬하고, 이어서 (주)한국해상풍력발전운영센터 및 람사르 고창갯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

봤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영국 간 생태, 기후 분야 국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시군통합30주년기념 8월까지국민누구나참여가능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김제시 승격과 통합의 역사가 담긴 근현대 기록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제5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지난 2000년 이전 김제시 관련 민간기록물로, 특히 김제시·군 통합 30주년으로 1989년 김제시 승격과 1995년 김제시·군 통합 과정 당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다양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록물을 지참해 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군 통합 30주년과 김제시 승격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의 기록으로 완성하는 뜻깊은 공모전”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김제의 변화와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새우 중하 포획 어구·어법 개발

새로운 소득원 자리매김 기대

부안군은 새우(중하)자원의 경제성 활용이 가능하도록 새우(중하) 포획에 최적화된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시험어업은 연안에 중하 자원이 풍부하나 이를 포획할 마땅한 어구·어법이 없어 어업인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 군산대 산학협력단, 어업인 등과 공동으로 중하를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구·어법의 개발과 이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군은 중하 자원량 조사와 자체 개발한 포획어구의 성능, 조업의 경제성 분석과 함께 전문가 자문과 어업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중하 포획 시험어업 마지막년도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시험어업 성과를 토대로 중하 포획 어구·어법의 제도권내 합법적 수용을 해수부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하 자원이 어업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공음면,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고창군 공음면의 속원면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 5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지난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공음실내체육관에서 ‘칠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칠암천은 구암천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그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접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하천이었다.

고창군은 총사업비 272억원을 투입해 2021년 3월 공사에 들어가 5.8km의 구간에 대해 홍수대를 제방보강과 교량 재가설 11개소 등 하천정비를 완료 했

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기능 향상과 홍수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완료된 칠암천 외에 5개의 하천정비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총사업비 653억원이 투입예정인 고창천이 착공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하천을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의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SA등급’

공약 완료율 63.8%

전국 평균 대비 10.75% 높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서 부안군이 2년 연속 SA등급을 달성하며, 공약 신뢰도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률 △목표달성도 △주민과의 소통 정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부안군은 총 80건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51건을 완료했으며, 27건이 정상추진 단계에 있어 공약이행 완료율 63.8%로 전국 평균(53.05%)보다 높은 수치로 우수한 이행 실적을 보여준다.

특히, 부안군은 매분기 공약이행 실적 점검보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정책의 투명성과 민

주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했으며, 공약 추진상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신뢰행정 시스템으로서 높은 신뢰를 얻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공약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 중심, 신뢰받는 부안군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 선발

학기당 30만원 지원

6월 9일까지 신청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관내 대학생들의 생계·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5년 5월 19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사이버 대학 또는 디지털 대학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30만 원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8학기 24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입학확인서, 원룸 등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

인 또는 부모가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오는 6월 21일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학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인력양성 본격

신규·재직자 200명 대상

11월까지 맞춤형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16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센터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 신규 및 재직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첫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과정은 신규자 40명과 재직자 160명의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캠틱종합기술연구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진행했다.

이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기업 지원을 위한 첫 국가 공모사업으로 교육과정은 △생성형 AI·디지털 교육 △모빌리티 특화교육 △직무 공통 교육으로 구분돼 있으며 기업 주도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안정적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총 사업비 3억6천만원(국비 240 도비 36 시비 84)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진행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과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은 물론 각종 규제 특례와 금융지원,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괄하는 과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시는 신규로 조성 중인 백구 제2특장단지과 지평선 제2산업 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

전특구로 지정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숙련된 전문 인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뉴텍 김명호·유영우 대표, 부안군에 3백만원 기탁

(주)뉴텍 김명호·유영우 대표가 지난 14일 부안군 고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발전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뉴텍은 완주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평소 부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꾸준히 이어온 기업이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를 응원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주민복지 향상을 기여하겠다는 뜻에서 이뤄졌다.

김명호 대표는 “부안이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도 매력 있는 지역을 기탁하며 지역발전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두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기부금은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군민 900명대상 7월31일까지지역사회건강조사

고창군이 군민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표본가구로 선정한 고창군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을 포함한 총 19개 영역 175개 문항으로 조사 대상 가구에 가구선정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군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등 건강행태를 파악해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다”며 “표본가구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자원순환시민전문가 20명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6일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20명에게 강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들은 제3기 교육생으로, 시민 주도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신규로 양성됐다. 이들은 위촉에 앞서 4주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생활용의 이해 등 자원순환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며,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3기생은 향후 1기 및 2기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현장에서 쓰러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제1기 및 2기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37명을 강사로 위촉해 교월동 39개 마을과 만경읍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농촌개발대학, 선진농업현장 6차산업 성공모델체험

고창농촌개발대학 농업리더교 교육생 40여명이 지난 15일 전남 나주 지역의 선진 농업현장을 방문해 치유농업, 6차산업화 사례 등 다양한 농업 경영 기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견학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6차 산업화 흐름에 대한 교육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첫 일정으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방문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과 관광자원 개발 사례를 견학했다. 숲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산림 기반의 다양한 치유 모델 산업을 이해하고, 산림과 농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염색장 정관재 전수교육장을 찾아 전통 쪽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체험에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 정관재 명인의 지도로 쪽 염색 이론을 배우고, 실제 천연염색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성공 사례를 몸소 느꼈다.

고창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박차

대산면민 대상사업설명회 사업계획·예정지 매입 안내 청년농 유입R&D 연계 기대

남원시(시장 최경식) 스마트농생명과는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및 대산면민을 대상으로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간 남원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사업설명회를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남원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내용, 2026년 사업 공모계획, 사업예정지 매입 절차 설명이 주요 내용이었다.

2025년 상반기 내 사업예정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60.1ha 규모의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



남원시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설명회를 대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5일~16일 이틀간 개최했다. <사진=남원시>

생산, 유통, 연구개발(R&D)을 집중 육성하고, 첨단기술과 청년농 유입, 바이오 작물 재배를 결합한 농업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 중 '남원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남원시에서 대산면 운교리, 수덕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속한 사업이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6년 사업 공모를 위해 2025년 연내 사업예정지 매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이 대둔산 축제와 관련해 참여 프로그램 '대둔산 비경쟁 등산대회'와 '대둔산 하이킹'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완주군>

완주 대둔산 축제 '색다른 트레킹'

비경쟁 등산·하이킹·트레킹 프로그램 참가자 선착순 모집

완주군이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대둔산 축제와 관련해 참여 프로그램 '대둔산 비경쟁 등산대회'와 '대둔산 하이킹' 프로그램을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 프로그램의 대표주자인 '대둔산 비경쟁 등산대회'는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구름다리-삼선계단-마천대-낙조대-용문굴-칠성봉전망대-신선암-용문굴로 이어지는 코스다. 참가비는 인당 1만 원이며 총 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은하수 둘레길 트레킹'은 대둔산 은하수길을 따라 펼쳐지는 평탄한 트레킹 코스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6월 7일 ~ 6월 8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일차별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편, 올해 완주 대둔산 축제는 '너의 도전 열매에 저장해 봐, 대둔산 모먼트'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이틀간 대둔산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소득세 신고 돕는 '마을세무사 집중 상담'

완주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을 맞아 마을세무사 집중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마을세무사 집중상담을 실시한다.

군은 상담과 동시에 신고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서비스를 지원한다.

합동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만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저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운영된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고,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회찬 재정관리과장은 "마을세무사 집중상담을 통해 세무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로 어린이 안전의식 높여

남원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이틀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관내 어린이, 초등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일상생활 안전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안전체험교실에서는 감염안전, 교통안전, 승강기 안전 등 14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실내체육관 실내존에서는 △비상구대피 △감염안전 △수상안전 △키보드안전 △보행안전 △소화기 체험 △신변안전 △식품안전 △심폐소생술 △재난예방VR안전 부스를 운영했으며, 실외존인 광장에서는 △완강기 체험 △투척용 소화기 △승강기 안전체험 △교통안전 등 이동식 체험 차량이 배치돼 재난·재해 안전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남원시의 어린이, 학생, 시민들에게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며 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행락철 맞아 강천산 일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순창군은 행락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강천산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는 순창군 경제교통과와 안전재단과를 비롯해 순창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강천산처럼 방문객이 많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의 중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행락철에는 차량 통행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6일 완주군 일원에서 생활리에 개최됐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어르신 생활체육 중심지 역할 '톡톡'

전북자치도 대회 현황 9개 종목 2,200여명 참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6일 완주군 일원에서 생활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와 완주군체육회(회장 이종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2,2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했으며 유희태

/완주=김명곤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투표 참여 적극 독려 나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현장 캠페인

최영일 순창군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최영일 군수는 순창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선거일 안내, 투표 절차 설명, 유권자의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며 투표 참여를 알리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함께한 신규 공무원들도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공약이행률 78.05%...종합 평점 87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

남원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관한 '2025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SA 등급을 받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0여

일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선거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였으며, 남원시는 종합 평점이 87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다.

시는 '민선 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6대 분야 41개 공약사업 중 23건을 완료하고 18건을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이행 완료율은 전국 평균 53.05%보다 높은 78.05%이고, 2024년 목표달성율은 전국 평균 92.55%보다 높은 100%이며, 공약이행률 위한 필요재정 확보율은 전국 평균

43.11%보다 크게 상회한 51.72%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규정에 공약 이행평가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과 남원시 누리집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통행정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3년 연속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약이행 65.2% 평균 상회 주민참여·실현 가능성 호평

완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관한 '2025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공약이행 완료 ▲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12개의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주민배심원제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수립 단계부터 공약의 조정, 이행사항 평가에 이르기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군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효성 있는 공약 추진에 집중해 왔다. 공약

의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간 점이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우선, 현장 중심, 혁신 행정'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모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 민선 8기 현재 공약 이행률은 65.2%로,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공약이행률 전국 최고 수준 83.54%

2년 연속 최우수 SA등급 평균보다 30%이상 높아

순창군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이행 우수 기초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전국 시군구청장의 평균 공약이행(완료)율은 53.05%에 그친 반면, 순창군은 83.54%로 3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이는 전북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이

행률인 것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우수한 수준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의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군정비전 아래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공약사업 중 53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26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이다.

군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연말까지 7개 사업을 추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전 부서가 협력해 공약사업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임기 종료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공약이행 점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무주군, '건강알림톡' 채널 금연·신체활동 등 정보 제공

무주군이 '건강알림톡(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건강알림톡은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건강 관련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금연 △신체활동 △영양 △비만 △한의학 △절주 △심뇌혈관질환 △재활과 관련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진행된다.

운영 인력은 보건의료원 간호사와 행정, 만성질환관리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 9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시간 이외에는 사전에 등록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동 응답된다.

박하영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장은 "알림톡 채널을 유익한 건강정보, 다양한 보건사업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지역 건강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정보, 알기 쉽고 참여하고 싶은 사업정보가 공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군민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역할을 강화할 방침으로, △만성질환 자가 관리 및 인지 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힘쓰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KPTA 전국 장애인 태권도대회' 무주국민체육센터서 성료

'KPTA 전국 장애인 태권도대회'가 지난 17일과 18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이원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2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체 장애부 겨루기, △청각 장애부 겨루기와 품세 △지체 장애부 품세, 격파, 경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수들이 실력을 겨뤘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장순식 전북장애인태권도협회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해 선수와 심판, 운영진 등 35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김성중, 김홍식, 김상래 심판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상 체육진흥상을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장애인태권도대회 개최지가 되고 있다는데 긍지를 느낀다"라며 "태권도 성지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태권도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대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11월까지 수질 환경 보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임실군이 공중위생 향상과 육정호 녹조 예방 등 관내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자 2025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장소, 야영장, 육정호 인근지역 등을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 알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청소 이행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운영상의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군은 관리계획에 따라 육정호 인근지역과 2024년도 지도·점검 방문유수 수질검사 부적합 대상지, 시설용량 등을 고려해서 50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점검 결과 운영이 부적절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및 재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역내 공공 수질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시설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일 기자

무주군, 장사시설 설치 사업 선정

봉안시설부족문제 해소 장사수요 대응기대 "예산확보·절차이행 최선"

무주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천1백만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무주추모의 집 내에 약 200㎡ 규모의 산분(散粉)장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추모의집은 산분 장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산분 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산 등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을 위한 지정 장소로,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분장은 올해 1월에 개장된 장사 등



무주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7천1백만 원을 확보했다. <사진=무주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화됐다.

이은주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고령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며 "무주군은 원할

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을 임실N치즈축제 콘텐츠 대폭 강화

기존 4일서 5일로 확대 관광객 유치 성공개최 총력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기존 4일이 아닌 5일간으로 확대 개최되며, 한층 새롭고, 더 풍성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군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심민 군수 주재로 축제 제전위, 대행사,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임실N치즈축제 기본 계획 보고회를 열고, 축제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치즈'와 '임실N치즈피자'를 테마로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 역사를 기념하면서, 지난 1967년故 지정환 신부가 산양 2마리로 시작한 임실치즈 산업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왔다.

군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욱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내방객들이 쾌적하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기존 4일이 아닌 5일간으로 확대 개최되며, 한층 새롭고, 더 풍성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N 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푸드체험 등 프로그램을 더욱 새롭고 완성도 높게 준비하고, 특히 저지중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활용 프로그램을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이 울해도 어김없이 축제장 일대를 가득 수놓아, 유령형 장미원과 함께 어우러

져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감동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간 10년을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알리는 성공적인 2025 임실N치즈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예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새로운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많이들 오셔서 치즈축제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일 기자

최훈식 군수, 환경부 방문 국비 확보 활동

양악농어촌정비사업 등 설명 지역환경개선 필요성 역설

장수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단계 대응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최훈식 장수군수가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 설명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해 서해평 생활하수과장을 면담하고, 장수군이 중점 추진 중인

환경 인프라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해당 사업들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양악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삼거리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322억원 규모로,

장수군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의 환경 현안은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스마트농업 선진화 현장견학

지역소멸위기 대응 임대형 스마트팜 현장 방문

진안군은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전춘성 군수와 관련 부서 실무진이 함께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장수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유치형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거기에 진안군과 장수군은 전북 동부 산악권에 위치한 인접 지자체로 고품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두 지자체는 스마트팜 기반 농업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진안군은 현재 마령면 일원에 총 5.1ha 규모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견학을 통해 진안군 일행은 장

수군의 조성 추진 상황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설 현황을 둘러보며 주요 시설과 기술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향후 진안군의 스마트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장수군의 선행 사례를 참고해 청년농업인의 창업 기반이자 안정적 정착 공간이 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읍소재지 우회1동 주거환경 탈바꿈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준공

진안군은 읍소재지 우회1동 일원에 추진한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준공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안전에 취약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회1동 일대는 야간 조도가 낮고 노후된 주택과 골목길이 밀집해 있어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주민

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길 벽화거리 조성, 도막형 포장, 바닥지붕 설치 등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이 한층 더 밝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송형진 진안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동고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식

장수군은 지난 16일 동고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준공식 및 주민화합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고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 행정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이정표가 된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공간 사업을 이끌어 온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노고를 되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고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생활환경 개선뿐 아니라 '동고 문화의 날',

'동고 화합의 날' 등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워왔다.

특히 이번 준공식은 단순한 시설 완공을 넘어,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시간이었다. 주민들은 새롭게 조성된 시설을 둘러보며 마을의 변화를 체감했고, 향후 자율적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준공식과 주민 화합행사를 통해 마을이 더욱 단합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우수'

주민소통 등 5개 분야 분석

진안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이날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1월부터 4개월간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이행도 등 5개 분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진안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60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도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지원 확대 △스펙트럼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왔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이행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우즈베키스탄 농림부, 장수군 방문

저탄소 축산기술 벤치마킹

전북 장수군은 우즈베키스탄 농림부 및 축산 고급연구소 직원 7명이 축산 분야 생산효율 증대 및 저탄소 축산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5일 장수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학교가 공동 추진 중인 공공협력 ODA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저탄소 축산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사전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장수군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 △저탄소 기반 씨소스 개발 △저메탄 TMR

사료 개발 등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러 방문단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유전자뱅크, ㈜이타비오토크 연구소, TMR 사료공장을 차례로 견학하며 △우량한우 유전자 생산 및 보급 △실용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 공공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양국 간 지속가능한 축산기술 교류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북교총, 가정의 달 맞아 '아름다운 동행' 힐링콘서트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생님들과 도민이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국악과 클래식의 아름다운 협연으로 꾸며지며, 바쁜 교육현장에서 지친 교원들에게 쉽고 감동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전북교총은 콘서트의 티켓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병원-정읍시립요양병원, 연명의료 협약체결

중소병원 윤리위 지원 확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공윤리위원회(위원장 손지선)가 정읍시립요양병원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립요양병원은 협약을 통해 전북대병원 공공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 관련 윤리 심의 및 행정 절차를 위탁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과 공공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도리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벤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등 총 12곳이다.

전북대병원 공공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로 지정된 후, 제도 확산과 정착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공공윤리위원회가 정읍시립요양병원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대학교병원>



정읍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들의 '깜짝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 정읍시가족센터에서는 한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결혼이민자들이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준비한 특별한 '깜짝 감사 행사'가 열려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어교육 수강생들은 예고 없이 강사들에게 카네이션과 감사 선물을 전하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번에 스승의 날의 의미를 처음 알게 됐다는 한 수강생은 "선생님들 덕분에 한국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언제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수줍지만 또렷한 한국말로 마음을 전했다. /정음=김정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4-H연합회, 경북 산불 피해 성금기탁

농업 피해복구 일손돕기 참여

전북특별자치도4-H연합회(회장 이강준)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어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 피해지원 성금 1천만 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4-H연합회와 시군4-H연합회가 한마음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직접 경북지역을 방문해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피해복구 일손돕기도 함께 경북 청송지역의 피해마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25명의 영농봉사자와 사과, 복숭아 과원의 적과작업에 참여해 피해 농업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복구를 위해 함께 힘을 쏟았다. /정재근 기자

이 자리에서 3개 어린이집은 보육 아동과 가족, 어린이집 교직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라면 1400여 개를 전주함께라면 사업(원장 이미지)과 태평아이숲어린이집(원장 정미라), 예교누리어린이집(원장 안강순) 등 전주지역 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동참했으며, 3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대표 아동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재근 기자



고창군 아산면 손수춘씨, 지역 어르신 위해 170만 원 기탁

고창군 아산면 삼인마을 손수춘씨가 아산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170만 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아산면 어울림행복누리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복누리 프로그램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손수춘씨는 "아산면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마을과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주 3개 어린이집, '전주함께라면' 후원 동참

전북자치도 전주시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기은하)은 16일 전주함께라면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혁신대방어린이집(원장 이미지)과 태평아이숲어린이집(원장 정미라), 예교누리어린이집(원장 안강순) 등 전주지역 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동참했으며, 3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대표 아동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재근 기자

이 자리에서 3개 어린이집은 보육 아동과 가족, 어린이집 교직원 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라면 1400여 개를 전주함께라면 사업(원장 이미지)과 태평아이숲어린이집(원장 정미라), 예교누리어린이집(원장 안강순) 등 전주지역 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동참했으며, 3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대표 아동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재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군산 방축조에 '생활안전' 재능기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자매결연마을 어르신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직원 재능기부 활동에 나섰다.

국민연금의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군산 방축도를 직접 방문했으며, 방축도 마을은 공단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내부 안전 전문가가 방축도 가구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공단은 위험요인

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넘어진 사고 예방을 위해 방축도 내 30가구 중 10가구에 옥실 내 미끄럼 방지 코팅제를 시공했다. 적정 조도 확보를 위해 6가구의 어두운 전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도서지역 특성상 주택용 LPG 가스 점검이 어려운 만큼 가스누출 안전까지도 점검했다. /김영태 기자

부안여고 학생들, 바자회 수익금 부안군에 기탁

부안군은 지난 14일 부안여자고등학교(교장 김성근)가 부안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부안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한 방축도 바자회 진행 수익금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했으며 기탁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성근 부안여자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황현지·김미연 학생부회장, 학부모회 대표가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은행 정읍시청지점, 취약계층에 여성위생용품 전달

전북은행 정읍시청지점은 16일, 여성을 위한 위생용품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정읍시청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이번 기탁은 전북은행에서 매년 진행하는 '2025 딸에게 보내는 선물'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생용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에 기탁된 여성위생용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음=김정민 기자

졸음운전 퇴치꿀팁

- 1 운전 전에 충분한 수면취하기**
- 2 창문 열고 실내 환기 하기**
- 3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휴식하기**
- 4 앞차가 졸면 경적 울려주기**

〈一事一言〉



학교는 교사가 살아야 살 수 있다

김관춘
논설위원

지금, 교단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 교사의 가슴은 무너지고,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닌 생존의 전장이 되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위기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이미 바닥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그 속에서 58%의 교사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고 23.3%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는 단순한 직무 스트레스를 넘어,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정체성과 존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무엇이 교단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중심에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전북의 초등학교 순직 사건들이 사회적 충격파를 던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들이 다시 악성 민원의 공포 속에 놓였다. 지난해 교육부가 집계한 지역교육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됐다. 이쯤 되면 교실이 더는 교육의 장이 아닌, 감정의 격전지로 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적 장치는 도입됐다.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권한이 생겼고, 민원 대응 전담팀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체감은 냉랭

하다. 제도는 마련됐으나, 실효는 요원하다.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익명 뒤에 숨고, 무고하거나 과장된 민원이 드러나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다. 교육 현장에서 '신뢰'라는 이름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믿음을 잃으면 교육은 그 뿌리부터 흔들린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면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는 관계에서 배움은 매마를 수박에 없다. 교사의 권위는 학생을 억압하는 수단이지, 학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아니다. 이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혼란뿐이다.

하지만 해법이 과거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강압적 훈육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속에 공존해야 할 가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토양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토양을 복원하는 첫 단추는 바로 '교사의 사기 진작'이다.

교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그들은 지식을 전수하는 전달자를 넘어, 다음 세대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교육자'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사가 무너진다는 것은 내일의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는 의미에 다름 없다. 교직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실현하는 전문직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교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실이 살아나고, 국가의 미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는 대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시급하다.

먼저,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분별한 민원과 무고에 대해서도 학부 모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상호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신뢰가 자랄 수 있다. 교사의 심리·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정기적 심리 검진,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는 감정 노동자인 동시에 정서적 돌봄의 주체다. 그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학생을 지키는 일이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 업무 과중과 각종 부처적인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의 눈을 되찾는 일이다. 교사

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예의이자, 교육이라는 공공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관념적 예의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철학이었다.

학교는 교사가 살아야 살 수 있다. 교사의 눈에 희망이 있어야 교실에 생기가 돌고, 아이들의 미래도 밝아진다. 지금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 아니다"라는 사회적 연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다. 교사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단지 힘든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외면받고 있다는 깊은 소외감 때문이다. 교육은 한 사람의 교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짜야 할 거대한 그물망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신은 당연하고, 존중은 생략 가능한' 교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이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 교사의 힘을 국가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교사의 상처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무너져가는 교육을 다시 세우고,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설

전북을 역사적 상징으로만 소비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열흘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았다.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그는 동학혁명의 정신을 소환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대동세상'을 강조했다. 동학의 뿌리가 전북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동학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잇는 역사적 계보 위에 전북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역사적 상징의 재소환은 있었지만, 유권자들이 실제로 기다렸던 것은 '기억의 환기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국토균형발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교육·기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첫 방문 때와 거의 비슷한 추상적 언급이 아니라 지역이 기대하는 구체적 공약 제시였으며, 유세에서 그 핵심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북을 방문하기 전 영남권을 돌며 조선업, 금융, 교통, 인구문제 등에서 세부 사업명과 실현 방법까지 짚어가며 지역 민심을 얻었던 그의 행보와 비교하면 전북 방문은 형식적인 반복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 유세 현장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인 전제수 의원이 HMM 본사 유치 확인을 이끌어낸 것처럼, 캠프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전북에선 부재했던 것도 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65조 규모의 74개 공약사업을 제시한 바 있으나 후보가 이를 실질적으로 언급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히며 공약한 일은 없었다. 전북도민이 가장 큰 관심사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조차도, 조선업 전반에 대한 일반론으로 뭉개졌다. 전북을 향한 메시지가 '도민을 위한 구체적 약속'이 아니라 '전국 유권자에게 던지는 상징적 수사'로 소비된 셈이다.

전북은 늘 '정권의 동지'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정작 정책에서 실질적 동반자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공약권 개발, 재생에너지 거점 육성, 공공의료 확충,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되는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공약 목록에만 존재할 뿐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토균형발전'은 그 자체로는 선의의 명분에 불과하다. 구체성과 실현 로드맵이 없으면 실천은 없다.

정치권은 이제 '상징과 감성'이 아니라 '공약과 구조'로 전북을 대해야 한다. 전북은 단지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기억되기 위해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설계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반복되는 '공허한 약속의 순환'을 끊고, 실질적 변화를 약속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이 진정 듣고자 하는 것은 '정신을 계승하지'는 수사적 인명어 아니라,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시간표, 새만금공항 확장,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눈에 보이는 실행 계획들이다. 선거는 기억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약이다. 후보가 진정으로 전북을 위한다면, 더 이상 전북을 역사적 상징에만 가두지 말고 그에 걸맞은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오늘의시

누가 그날을 모른다 말하리 / 고정희

낮이어,
망월동에 잠든 낮이어
하늘이 푸르러 눈물이 나네
산꽃 들꽃 피어나니 눈물이 나네

진달래 온 산에 붉게 물들어
그날의 피눈물 산천에 물들어

꽃 울음 가슴에 묻어두는 어머니
그대 이름 호명하며 눈물이 나네

누가 그날을 잊었다 말하리
누가 그날을 모른다 말하리

목숨 바친 역사 뒤에 자유는 남는 것
시대는 사라져도 민주 꽃 만발하리

기슴과 가슴에서 되살아나는 넋
칼바람 세월 속에 우뚝 솟은 너

너 떠난 길 위에 통일의 비람 부니
겨레 해방 봄소식 눈물이 나네

시인 약력 : 1948년 전남 해남 출생.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다. 현대시학에 '연가'가 추천되어 문단에 나왔다. 1983년 초혼제로 '대한민국문학상'을 받았다. 1980년대 초부터 남녀 노소가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여성주의 공동체 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에' 동인으로 참여해 중추적 역할을 했다. 1991년 지리산 등반 도중 실족 사고로 숨졌다.

독자광장

가정의 달을 맞은 소중한 우리 아이, 소방안전체험관 나들이는 어떨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들이 계획을 세운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금, 가족들이 야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외출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 되며, 그만큼 나들이 장소도 고를 때도 신경써야 마땅하다.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아이들의 즐거움이다.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주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흔히 선택하는 외출지로는 키즈카페, 놀이공원, 유원지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인 소방안전체험관을 추천하고자 한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아동심리학에서는 '놀이'와 '학습'의 결합이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단순

히 재미있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소방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제 재난 상황을 모의한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한 대처 방법을 배우며 실습할 수 있다. 아이들은 직접 소방호스를 사용해 불을 끄거나, 화재 상황에서 대피 방법을 체험하면서 그 중요성을 몸소 느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며, 자라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평소의 생활에서도 유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방안전체험관에서의 경험은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이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하며,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준다. 또한, 부모는 아이가 안전 교육을 받는 모습을 통해 자녀의 성취감을 지켜보며, 아이와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형성할 수 있다. 부모와 함

께 소방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소방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된 5개 주제관에서 하루에 3번의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재난종합 체험동에서는 4D 상영관을 통해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의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위기탈출체험동에서는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하여, 피난 기구를 사용해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안전마을'과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뤄지는 전문응급처치 교육장,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한 생존 수영 교육 등, 연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안전 지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상황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안전을 넘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히 재미있는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곳에서 배우는 안전 지식은 나중에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찾고 있다면 소방안전체험관을 방문해 보자. 이곳에서의 안전 교육 체험은 위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지식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아이에게 단순히 재미와 놀이를 넘어서, 안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 기획지원과 전석주 소방장

문화재 열전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목조, 불상
- 지정일 - 2000년 11월 17일
- 소재지 - 무주군 무주읍 북고사길 67 (읍내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 05. 19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민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영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국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승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주간

1894년의 함성이 다시 고창에서 울려 퍼지다!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주간(4월25~5월14일)을 운영하며 동학정신을 함께 되새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개관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해 축하했다.

◆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 제 성료

첫 시작은 4월 25일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였다. 공음 무장기포지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무장포고문을 낭독하며 봉기한 무장기포의 역사를 되새기고, 자주와 평등을 향한 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다.

올해는 특히 아산중학교와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이 1894년의 농민군이 되어 진격로 걷기에 동참하고,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장음성에서 '새야 새야' 플래시몹 공연으로 신명나는 입성재연을 이끌어 내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느 때보다 활력 넘치는 행사가 됐다.

◆ 타임슬립 고창 in 1894! 동학진격로 걷기 챌린지 성황

기념제 다음날부터는 무장기포기념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학진격로 걷기 챌린지'를 운영했다.

'워크온' 앱을 통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600여 명의 신청자가 사전 신청한 '동학진격로 걷기 챌린지'는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토·일·공휴일 동안 운영됐다. 참가자 중에는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 여고 친구들, 자녀와 함께 걷는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역사체험의 장이 되기도 했다.

◆ 동학농민혁명 기념 총체극

'전봉준-무명의 녹두 전사들' 감동의 무대

5월 9일에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극단 토박이의 창작 총체극 <전봉준, 무명의 녹두전사들>이 성황리에 공연됐다. 이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당시 혁명을 이끌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농민군의 참 뜻을 기억하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리는데 초점을 맞춘 창작극이다. 이는 특히, 관내 학교들의 사전 예약으로 고창문화의전당 600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극적인 전개와 현장감 있는 무대 연출로 관객들의 큰 호응과 감동을 선사

동학진격로 챌린지 성황
창작극 '녹두 전사들' 감동
역사연구소장 황현필 강연
개관식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사한 무대가 됐다.

◆ 역사연구소장 황현필의 '고창군에 깃든 동학농민혁명' 강연 개최

5월12일 오후 2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고창 동학을 주제로 한 역사연구소장 황현필의 동학농민혁명 명사특강이 열렸다. 황현필 소장은 인기 역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에게 친근한 역사교육강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특강에서는 '고창군에 깃든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과 오늘의 민주주의의 형성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기념주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식은 5월 14일 오후 5시 전봉준장군 동상공원에서 개최됐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기존 공음면에 있던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여 기존 홍보관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됐다.

또한 기념관 옥상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쉐이드 시설과 벤치 기능을 갖춘 화단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또한 이번 개관식에서는 '청소년 문학상' 시상식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문학상'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詩' 분야를 공모하여 4월 수상작을 선정했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인 무장기포상은 영선중학교 3학년 천의현 학생의 '녹두의 봄은 다시 찾아온다'가 수상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 새롭게 선보이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군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휴식하며, 배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총체극 '전봉준-무명의 녹두전사들'

